

운영중단 방치 군산시민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 운영자 '거인의 친구들' 선정

내년까지 노후시설·설비 교체

사업비 90억원 들여 리모델링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이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군산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설계자로 '거인의 친구들'을 선정하고 변신을 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운 운영·설계자로 선정된 '거인의 친구들'은 군산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가 그룹으로 인천의 복합문화공간을 운영 중인 콘텐츠기업과 서울 소재의 재생건축분야 설계자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다.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은 지난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시민문화회관은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방치돼오다가 군산시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방식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앞으로 시민문화회관은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까지 노후시설과 설비 교체 등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소유권을 군산시가 보유하고 운영권을 얻은 '거인의 친구들'이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겸하

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민문화회관 공간은 문화형과 휴식형, 수액형으로 활용한다. 공연장(메인홀)과 전시장(시민홀)은 문화형 공간으로 활용하고 야외광장공원과 옥상공원 등은 휴식형공간으로 활용된다. 1층 로비카페와 3층 레스토랑, 로컬샵 등은 수액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와 연계해 기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노약자·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간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자와 설계자를 선정함에 따라 잠들어 있는 시민문화회관이 활발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에

낙차 50m 경관폭포 조성

고창군이 선운산도립공원 내 도솔제 인근에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 내리는 경관 폭포를 조성했다.

고창군은 총예산 10억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던 선운산 경관폭포 조성공사가 마무리돼 현지에서 시연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좁은 바위 사이를 지나 끈끈 물줄기를 쏟아내는 경관폭포는 깎아지른 듯한 도솔제 인근 절벽에 설치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장관을 연출한다.

높이 50m, 폭 35m 규모의 경관폭포에는 분당 6.4t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60마력의 수중모터 3기가 설치됐다.

군은 경관폭포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 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타지역 시설 벤치마킹 등을 거쳐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경관폭포 조성엔 이후에는 진입로 폭포 스토리텔링 안내판, 폭포 입구까지의 무장애데크길 300m연장, 폭포 앞 조망쉼터 및 포토존 등이



선운산 경관폭포 시연행사에 참석한 유기상(왼쪽) 고창군수가 관계자들과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설치된다.

또 도솔제 주변 탐방로 무장애길 및 황톳길, 수변데크길, 수상 놀이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웅장한 경관폭포는 관광객

들이 즐겨 찾는 선운산의 새로운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며 "향후 도솔제 인근 탐방로 등과 연계해 더욱더 각광받는 선운산도립공원이 될 수 있게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민 '규칙' 개정·제정·폐지 의견 낼수 있는 조례안 제정

주민 자치권 강화...내년부터 시행

순창군이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순창군은 지난 14일 열린 군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임사항과 필요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내용상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의 '규칙'은 행정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가지지 않아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주민들의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었다.

군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규칙은 관련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적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규칙에 대한 군민 의견이 제출된 경우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인에

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확대했다.

특히 군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은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극적이거나 회피성 행정사례도 줄어들게 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보에 게재되면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시 연말연시 성금·물품 기탁 줄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정읍시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한우협동조합은 최근 정읍시청을 방문하고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280kg을 기탁했다.

또 정읍한돈협회는 약 5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500kg을 전달했다.

정읍한돈협회와 전북한우협동조합은 꾸준히 돼지고기와 한우를 기탁하며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전선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와 정읍지회(위원장 이재전)도 이날 정읍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전선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에 대한 대정부 견의와 정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전라북도회와 정읍지회는 매년 꾸준히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정읍 칠보재립교회(목사 서명수)도 칠보면에 저



전북한우협동조합은 지난 14일 정읍시청을 방문, 10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280kg을 기탁했다.

소득층을 위한 후원품 두유 18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한 100만원 상당의 두유는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 180여 가구에 골고루 지원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기부를 이어오며 아름다운 나눔, 선한 영향력을 전파 해주시는 기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받은 성금·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장관상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의 자생적 인문학활동 확산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2015년부터 사업에 참여해 2021

년까지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번 사업 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도서관들의 총 390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사업실적 등의 결과를 통해 진행됐다.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그리스로마신화와 한국의 민간신화를 주제로 한 강의, 이와 연계된 '치유글쓰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개소

익산시가 국내 최고의 XR(확장현실) 산업 선도시로의 성장에 나선다.

익산시는 15일 XR(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XR(eXtended Reality)산업은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미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유망 산업이다.

지원센터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해 관련 교육과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8억원 등 총 사업비 83억원을 확보해 장인동 SK빌딩 3층과 원광대학교에 센터를 마련했다.

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운영을 담당한다. 센터는 XR 소재·부품 분야 테스트 지원을 위한 장비실, 홍보 및 제품전시실, 기업지원실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은 원광대학교



익산시가 지난 15일 XR(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에 별도의 시설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업의 제품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시험·인증·특허 바우처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홀로그램뿐만 아니라 확장현실 산업 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와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